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만들어진 홈스쿨 커리큘럼

# 코너스톤 커리큘럼



“세계 어느 곳의 선교 현장에서든 코너스톤 커리큘럼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홈스쿨러와 대안학교를 위한 코너스톤 커리큘럼”

## 코너스톤 커리큘럼의 특징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성경성품에 기초하여 역사, 국어, 한문, 영어 등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 통합 교육적 공부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교육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새로운 교육 철학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두 10단계로 구성하여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지고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며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과 성품 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컷 메이슨 교육 방법론과 고전교육 방법론에 따라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맘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너스톤 커리큘럼의 단계별 구성

<b>1단계</b> 세계사 I 만6~8세	<b>2단계</b> 세계사 II 만7~9세	<b>3단계</b> 한국사 만8~10세	<b>4단계</b> 한국기독교사 만9~11세	<b>5단계</b> 동양사 만10~12세
<b>6단계</b> 세계사심화 I 만11~13세	<b>7단계(준비중)</b> 세계사심화 II 만12~14세	<b>8단계(준비중)</b> 한국사심화 만13~15세	<b>9단계(준비중)</b> 한국기독교사심화 만14~16세	<b>10단계(준비중)</b> 세계교회사 만15~17세

##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므로 자신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2.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10단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성경과 성품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에 보시기에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성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벧전:15-16).
4.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실컷 메이슨 교육 방법론에 따라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맘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법을 일깨워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7. 커리큘럼은 36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어린이들의 성취도에 따라 진도와 학습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안학교, 코업에서 <커리큘럼 가이드북> 단체 구매를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 문의/상담

코너스톤 커리큘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전화/이메일/방문)  
TEL. 02)529-7722 | EMAIL. dctybooks@dcty.co.kr | HOMEPAGE.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el.02)529-7722 |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2012년 신입생  
현재모집

서울 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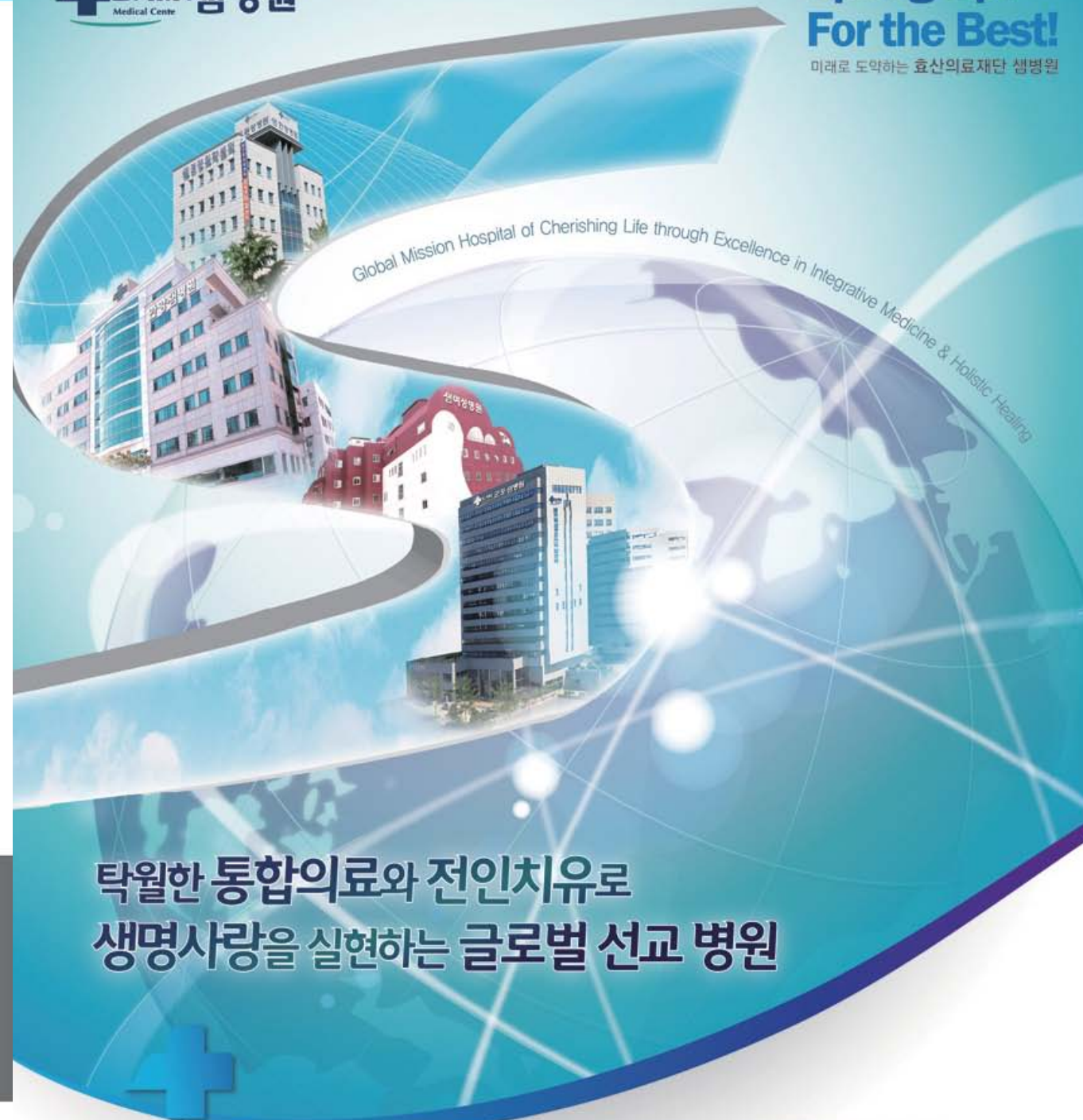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4학년)

.....▶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 병원

- 암에 대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통합의학암센터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인공관절수술 부문 우수기술 보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절성 평가 '최우수 등급' 병원
-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환자유치 종합병원 부문 1위 병원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G샘병원 031 457 9114

통합의학암센터 031 467 9188 / 9388 | 관절전문센터 031 467 9167 | 뇌척추센터 031 467 9285 | 치과센터 031 463 4383  
샘건강의학센터 031 463 4331~2 | 샘산업의학센터 031 463 4390~2 | 응급센터 031 467 9119 / 9129 | 산후조리원 031 467 1190  
산전관리실 031 467 1020~1 | 만안구노인보건센터 031 466 6370 | 샘병원교회 031 467 9335 | 장례식장 031 467 9700 / 9770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557.7710  
sicaacademy@dcty.co.kr  
www.sicaacademy.org





# 한국 교육, 실패한 종교

손봉호(대표주간)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연령대 청중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평균 성적은 95점인데 3등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까? 성적은 75점이지만 1등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까?”하고 물어본다. 대부분 모두 빙긋이 웃는다. 모두 후자를 원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나는 좀 잔인하게 다그친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까? 공부하라고 보냅니까? 1등 하라고 보냅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다그치는 나도 예외가 아님을 발견한다. 나 자신도 모르게 손녀들의 학교 성적보다는 그들의 석차에 더 관심을 쓰는 것이다. 철학을 가르치고 합리성을 강조하면서도 나도 에누리없이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세계관에 깊이 젖어있음을 발견하고 놀란다.

우리 사회를 멩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은 학생들이 훌륭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다.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가는 정부,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다 알고 가능한 한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한국인의 경쟁심이 이렇게 높은 한 사교육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입시경쟁이 치열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에는 대학입학 경쟁이 우리만큼 치열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처럼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에 교육열이 유난히 높고 교육 경쟁이 특히 치열한 것은 철두철미 차세중심적인 한국적 세계관 때문이다. 하나님도, 내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의미는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하고 삶의 모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이룩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立身揚名), 즉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는 것이 삶의 의미며 목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하여 고위공직자를 선발한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효과적인 사다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히 축적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혀서 그것들을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얻는 방편으로 받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요 종교적 열정으로 추구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기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정보시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고 그 덕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도 이룩했다. 한국뿐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등 유교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과대평가된 교육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모두가 출세하여 모두가 이름을 날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한 경쟁에서 1등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가 된다. 영국의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발표한 2011년도 번영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생활만족도 (Average Life Satisfaction)에서 조사대상국 110개국 가운데 104번째로 나타나 매우 불행한 나라임이 드러났다. 엄청난 경쟁심과 교육열로 사회는 발전했지만, 개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행해진 것이다. 종교적 열정으로 추구된 교육이 소기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종교화한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며 동시에 실패한 종교다.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높은 점수로 경쟁하는 교육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는 것이 높이 평가되는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해서 거의 무의미해진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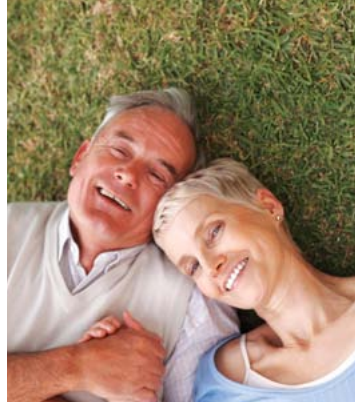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고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 Contents

WORLDVIEW · AUGUST · 2012



# WORLDVIEW

2012년 8월호 WORLDVIEW 통권 146호



표지인물  
리처드 에들린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OVER STORY

- 10 기독교세계관 좌담 기독교교육은 예수님 중심의 교육이어야 합니다\_이경원
- 16 지상특강\_01 기독교교육에서의 성경의 위치와 영향력\_리처드 에들린
- 20 지상특강\_02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꾼다\_신국원

## SPECIAL

- 26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황과 진단\_박상진
- 30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실태와 세례 유무와 신앙경력과의 관계\_정희영
- 38 연구 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_김정호

## COLUMN

- 04 대표주자 칼럼 한국 교육, 실패한 종교\_손봉호
- 08 발행인의 글 교회마다 기독교학교를 세웁시다\_김승욱
- 42 특별기고 희스입자와 그리스도인\_양승훈
- 46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청소년 드라마로 들여다 본 교실은\_박진규
- 50 그림책이야기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그림책\_현은자

## CULTURE

- 54 미술이야기 이서미, 상상을 깨우는 그림\_서성록
- 61 유머 어물전\_손봉호

## BOOK REVIEW

- 58 서평 이성적 믿음\_최용준

## NEWS

- 62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자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이상정  
사진 정일권  
디자인 황정희, 도슬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facebook.com/cworldview)

# 교회마다 기독교학교를 세웁시다

김승욱(발행인)

최근 한국 사회는 불평등한 교육기회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계급격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을 더욱 헌신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스펙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선행학습을 하자니 아이를 잡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불안합니다. 이런 것 싫어 조기유학 보내려고 하니 어린 자녀와 헤어져야 하고 가정이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고려하지만, 부실교육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부모들은 공교육의 왕따 문화, 폭력, 교실붕괴 등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도 유학과 연구년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 교육전문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세 아이를 미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봤고, 국내에서도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경험해봤습니다. 사립과 공립학교, 심지어 홈스쿨링까지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홈스쿨러들을 위한 홈스쿨링 교재와 기독교교육 교재를 공급할 목적으로 세운 DCTY 출판사의 권성윤 대표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다원주의나 진화론의 세례를 받고, 불신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 자녀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뱀씨를 모판에 키워서 눈에 옮겨 심듯이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시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키워서 세상에 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기독교학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최근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물론 공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교육목표에 들어맞는 진정으로 성경적인 학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춘천 V-SCHOOL의 차성도 교수는 이것을 대안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원래의 교육, 즉 원안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불평등한 교육기회 때문에 소득격차가 계급격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을 더욱 헌신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에 교회가 투자하는 것은 자녀에게 기독교 정체성을 심어주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더욱 바람직한 사회 건설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독교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꾸며보았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 경제사회회장역임.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 기독교교육은 예수님 중심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⑥ 인터뷰 진행 이경원(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교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가 세계관의 근본적인 신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 등등. 저는 세계관을 하나의 현상(spectacle)으로 보고 싶습니다.



리처드 에들린 박사 DipTchg; PG-Dip Arts; MA(New Zealand); EdD(Alabama); PhD(Hon)

리처드 에들린 박사는 뉴질랜드 출생으로서 같은 교사 출신의 부인과 함께 수 년 동안 중등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이후 호주의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에서 학장으로 10년 간 기독교 교육 박사 후 과정을 가르쳤다.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은 전세계의 기독교 교사들에게 인터넷으로 공부하여 교육학 석사 (M.ed)를 받을 수 있는 원거리 교육기관이다. 2009년 1월부터는 전세계의 기독교 교육과 공동체를 연구하는 에드저브 인터내셔널(www.edservinternational.org)에서 이사로 있는 한편 한국, 인도 등의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섬기고 있다. 에들린 박사는 기독교 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수 많은 강연을 했으며 저서, '기독교 교육의 기초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는 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2012년 후반에는 4차 개정판이 출판될 예정이다. 초등교육부터 대학까지 모든 레벨의 기독교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강연하는 에들린 박사는 세계관, 문화 훈련, 커리큘럼과 관련된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교사들의 효율적인 기독교 수업 전략에 주목한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고신 대학교의 객원 교수로 12 개국 이상 출신의 대학원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을 강의하고 있으며 고신대 교직원 훈련도 겸하고 있다.

**Question** 현재 고신대학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아내와 이곳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er (호주 정부에서 인증하는 선생님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제3세계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교육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고신대 김성수 총장님께서 고신대로 와서 그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3세계도 아니고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저의 뜻과 맞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고신대는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온 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영어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저는 박사학위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수들도 교육도 합니다.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일마다 저의 집에서 진행되는 교제입니다. 26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누구라도 와서 성경에 대해 나눕니다.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고민을 나누고 또 일부다처제의 문화에서 온 학생들은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독교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섭리를 축하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기독교학교입니다.

**Question** 교수님은 기독교학교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Answer** 기독교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섭리를 축하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기독교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해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듯이 기대하면서 배우는 곳입니다.

**Question** 세계관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가 세계관의 근본적인 신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 등





등. 저는 세계관을 하나의 현상(spectacle)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공부해서 얻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통해 살아가고 사물을 보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에서 세계관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모든 관계에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생 상호 간의 관계나 교사, 부모와의 관계에도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세계관이 갖는 중요성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무엇을 섬깁니다. 과학이나 수학 시간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성경적 기초(biblical foundation)입

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태양을 직접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비추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파트너가 되어 교육에 참여합니다. 학생은 교사를 닮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학교의 교사는 예수님과 같아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학생 위주의 교육(child centered education)이 아니고 내용 위주의 교육(content centered education)도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육(Christ centered education)입니다. 넷째 빛과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교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Question**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갖는 부담이 가장 크고 그 역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5번, 12~13년 동안 학교에 다닙니다. 자연히 학교 교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와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교사의 가르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사는 절대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교사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역사나 사회과목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수업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할 수 있을까요?

**Answer** 많은 기독교 교사가 오해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업과 접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일부, 혹은 반씩 섞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도 기독교인으로서, 매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모든 수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하나님의 이름 혹은 말씀을 수학과 그 수에 억지로 끼워 넣어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과 수학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창조세계를 보는 자신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Question** 교수님이 시작하신 Edserv International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Answer** Edserv International은 저와 제 아내가 시작한 단체로 기독교 교육자를 섬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호주 주 정부 기관(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er)을 은퇴한 후에도 기독교 교사를 교육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계속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과 재정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인도에서 기독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재정적 문제가 있었는데 후원자들 덕분에 제가 인도로 가서 기독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현장에서 느낀 한국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한국은 국제적으로 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국교육에 관해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립학교의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니고 학원 숙제를 한다고 학교에 와서는 잠만 자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매우 불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고등 교육 과정으로 올라갈



기독교학교에서 세계관이 갖는 중요성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은 없습니다. 둘째 성경적 기초(biblical foundation)입니다. 셋째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넷째 빛과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수록 유교적 문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교사를 존경합니다. 장점입니다. 외국인 교사인 저에게도 언제나 목례를 합니다. 그러나 유교적 문화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친밀해지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학생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5%나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고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이 교회들이 기독교 교육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거나, 이 문제를 기독교 학교가 도울수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로 학생들을 보낼 때 많은 학생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이 임하셔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Question**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난 140년간 복음에서 일본은 많은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도 많은 복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위해 대단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한국이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헌신적으로 전파하는 중요한 선교사역을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방국가에 있었던 물질만능주의가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충족하려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인생을 잘 즐기지 못하는 것 같고 즐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pop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즐거움을 찾고 누릴 수 있게 기독교 교육과 학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DMA)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DCTY)'이 있다.



## DCTY 컨퍼런스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제5회 DCTY 기독교교육 컨퍼런스가 2012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리처드 에들린 박사와 신국원(총신대 철학과), 이지성(“리딩으로 리드하라” 저자) 세 분의 강사가 주제 강의를 맡았으며 기독교 교육과 홈스쿨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강의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창조과학 캠프, 청소년을 위한 진로비전캠프도 마련되어 성경적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기독교교육에서의 성경의 위치와 영향력



## 리처드 에들린

학교에서 가르치진,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가르치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자들의 모임은 특별하다. 하늘에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교육이 정부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이클 고헤는 “성경의 스토리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데 이르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우주의 새로운 갱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선교적인 의미이고 성경의 스토리의 중심을 그런 각도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이란 항상 중립적이지 않다. 가르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게 종교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의 교육은 보편적으로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 과학주의

논리적인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 생각하며 감각이나 관찰을 통해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학은 중립적이지 않다. 비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과학, 학문으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 자체가 이미 깊숙이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인용한 왓슨은 당대에 널리 알려진 진화론적 과학자였다. 왓슨은 화석의 증거를 통해 생물의 발전 단계를 논증했다. “진화를 믿는 것은 그 증거가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의 불신앙은 자신의 학문 영역의 모든 것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과학주의가 우리의 지식과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경제적 합리주의

경제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가들이 각종 정책이나 주의를 내세울 때 이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생각은 교육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심지어 기독교 교육학자들조차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가끔 한국의 부모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무엇 이냐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업 갖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교육이라는 넓은 스펙트럼을 경제라는 좁은 의미로 축소해 버리는 결과는 낳는다. 성경은 교육이 직업훈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학교는 경제적 합리주의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경제의 권좌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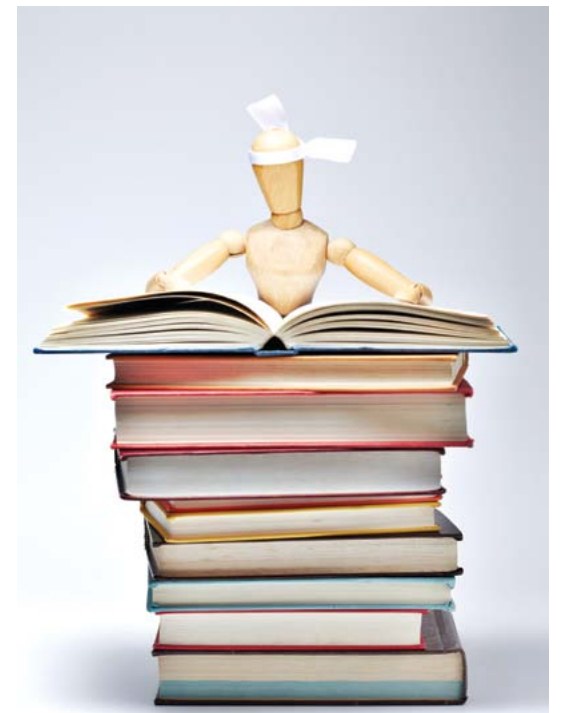
## 세속적인 인본주의

한국의 교육은 전통적인 유교 중심 교육으로부터 자녀의 인격에 중심을 두는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녀중심의 교육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인물인 존 듀이는 어린이가 교육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자로서 할 일은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진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교적 관점이다. 한국의 교육은 인본주의적인 재난으로 달려가고 있다. 아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교육은 각각 나름의 관점이 있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아는 세계를 해설하려고 한다. 교육이 편견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면 교육자도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변증적이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

만약 비신자들이 우리의 교육방법을 편견이 심하다고 비난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교육이란 편향성을 가진다. 너도 그렇다. 그러므로 내 편향성에 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신

앙과는 관련이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의 학문에는 관계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이들이 무엇을 믿게 될까? 하나님은 교회와는 관계가 있지만, 세상과는 무관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기독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은 잘 교육을 받아봐야 선생님과 생각이 같아진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을 공립학교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홈스쿨링과 기독교 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세상도 기독교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원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원론이란 경건 훈련이나 선교, 교회활동은 하나님과 상관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사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이방적인 사고이며 배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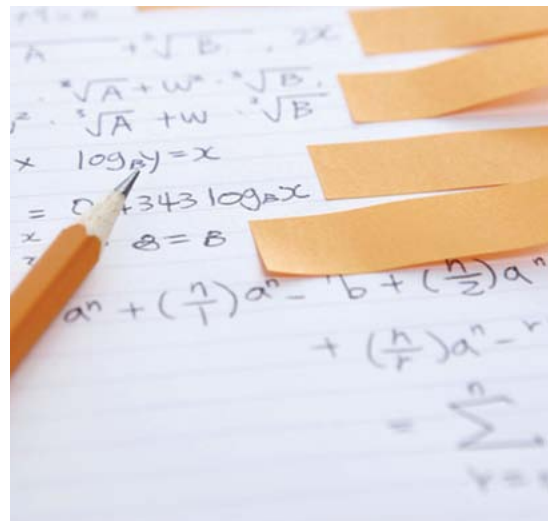




기독교를 종교라는 작은 영역 안에 가두면 세상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와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학부모, 교사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교육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 수학적 예시

기독교적으로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직업과 은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을 아주 명료하고 각별하게 기독교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세속적 관점에서 가르치게 된다. 만약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홈스쿨링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이 나올 것이다. 홈스쿨이건 기독교 학교이건 존립의 의미와 목적은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만든 커리큘럼을 가져다가 쓴다고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의 필요와 은사에 따라 적절하게 가르침으로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돕는 도구이지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 성경은 기독교교육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교육학자 더글러스 윌슨은 “태양이 비치면 해를 바라보듯 참된 지식이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독교교육 학자가 할 일은 학생들이 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독교교육은 성경에서 적합한 성경 구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빛 아래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은 훌륭한 기독교 교육환경 속에서 세 가지로 작동해야 한다.

#### 1. 경건의 기능

기독교학교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한 기독교대학의 졸업식에 참석해 보니 1부는 졸업예배, 2부는 학위수여식이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원론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 전

그런데 성경을 우리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 3. 침투적인 기능

성경이 교육 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기능을 말한다. 모든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특별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하는 일과 아는 모든 것들에 흠뻑 베어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도 1+1=2이다. 그런 점에서 수학은 중립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수학 속에 모실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계신다. 수학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표현이다. 수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과 권능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질문해야 했다. 어떤 종교나 이념도 1+1=2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그런지를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타락했을 때도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다.

태양을 바라보기보다 태양의 빛으로 세상을 보듯 성경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교과목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용기있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게 하라는 것이다.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졸업식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짜여야 한다. 창조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졸업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이 개발돼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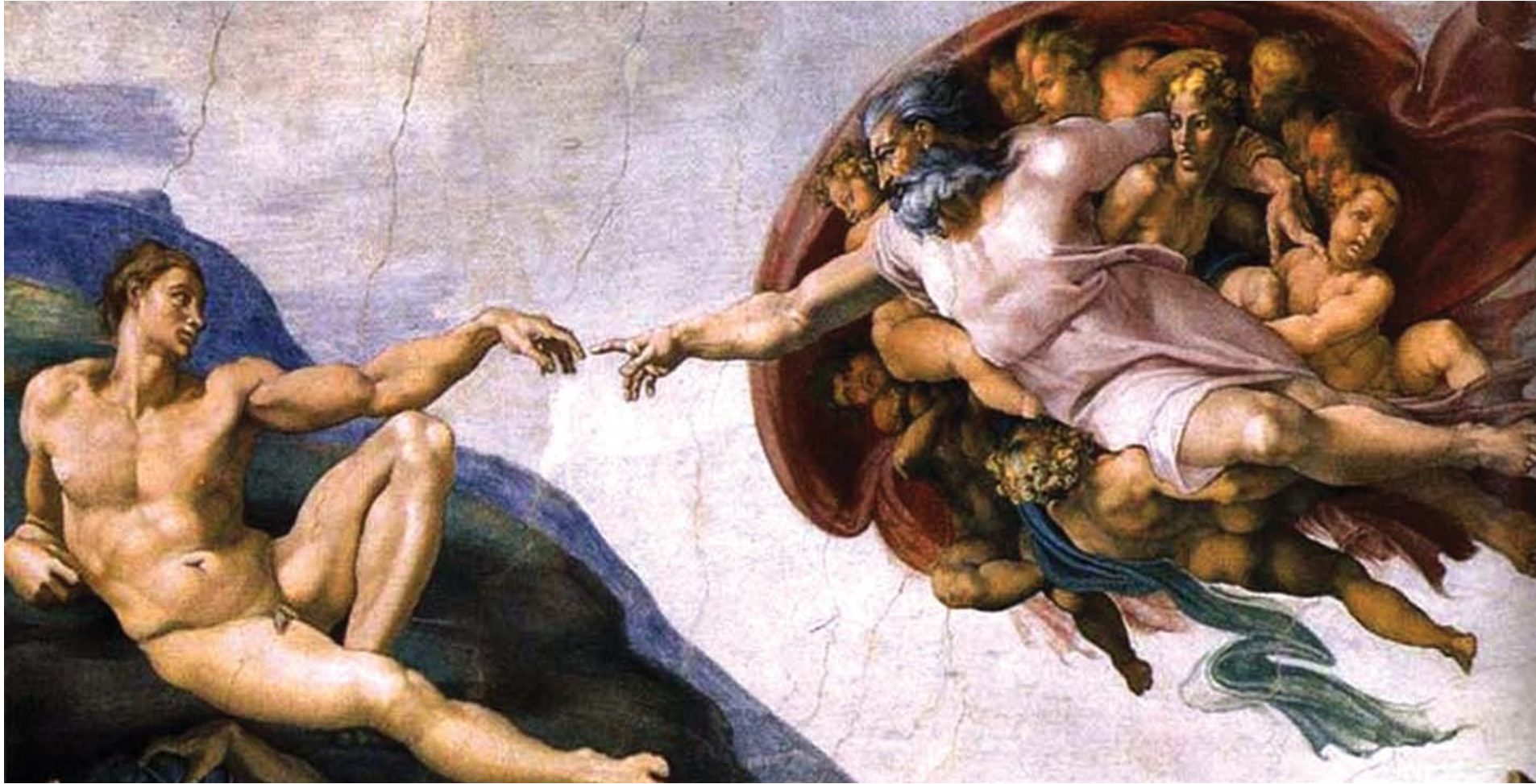
#### 2. 근본적인 기능

기독교의 진리 그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경 자체를 배우기도 하고 복음전파, 성화 등을 공부할 수 있다. 성경 형성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리처드 에들린** 고신대학교의 객원교수. 호주의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에서 학장으로 10년 간 기독교 교육 박사 후 과정을 가르쳤다. 2009년 1월부터는 전세계의 기독교 교육과 공통체를 연구하는 에드저브 인터내셔널([www.edservinternational.org](http://www.edservinternational.org))에서 이사로서 있는 한편 한국, 인도 등의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섬기고 있다.





##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꾼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안목은 대단히 독특하다.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서구적 세계관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서구적 세계관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듯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는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것을 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이들에게 믿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괴로움이 많았을 것이다. 번영하던 지역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호수아 때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

만 아브라함은 평생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우리도 그러한 눈이 열려야 한다.

###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상, 꿈, 비전, 계시가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동물 중에는 새와 사슴처럼 우리와 다른 위치에 눈이 있는 경우가 있다. 정면보다는 양옆과 뒤쪽을 더 잘 본다. 반면 호랑이나 부엉이는 눈이 정면에 박혀있어 멀리 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서 사람에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을 잊지 말도록 하는 배려일 수 있다. 우리의 안목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가라 폭포 관광을 할 때 처음부터 폭포를 구경하기 보다는 근처의 전망대에서 전체 모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보트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면 빨리 폭포에 대하여 이해하고 둘러볼 수 있다. 세상을 보는 것도 폭포구경과 비슷하다. 철학도 인생에 관한 이해와 조망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시행착오도 없을 것 같고 방향감각도 잃지 않을 것이다. 세계관이라 결국 이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결국 철학이건 인문학이건 무엇을 가르치건 이런 삶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이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피즐을 맞출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조각이 더 잘생겼는가 아니라 전체 이미지가 무엇이나이다. 부분에 집착해서는 500조각, 1000조각 피즐을 완성할 수 없다. 전체적 조망이 중요하다. 여기에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 인간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고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시작한다(예: 아담의 창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다(최후의 심판, 시스틴 성당의 벽화)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는 기독교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러한 삶의 여정을 따라 가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사는가에 따라 삶은 매우 달라진다.

### 세계관의 다양성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는 하나이지만 세계관은 하나가 아니다. 예전에 이웃에 국회의원이 살았던 적이 있어 자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참 대화하다 보니 그분과 나는 너무나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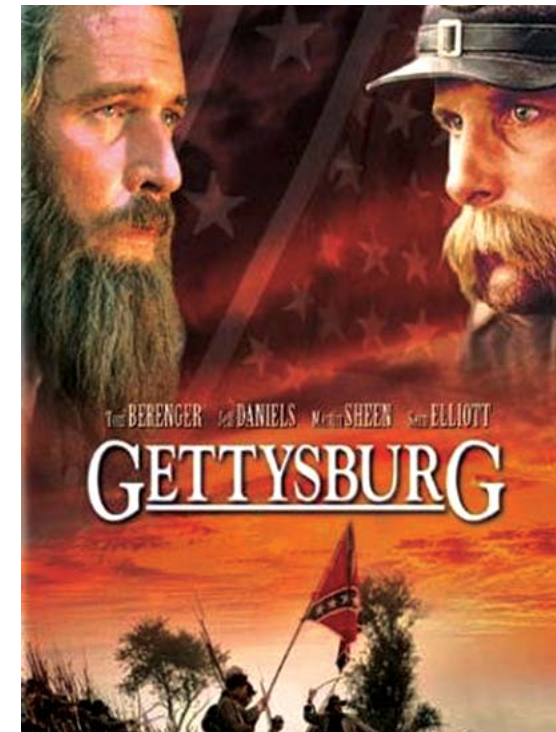
이탈리아 피렌체의 스타이 라인



뉴욕 맨하튼의 스카이라인

고 있음을 느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도 너무나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우리는 누가 어떤 것을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은 교육의 핵심으로 선생의 역할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영화 "게티즈버그"는 미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4시간 30분 짜리 대작이다. 미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영화



이지만 너무 긴 상영시간 때문에 관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졸다가 잔인한 전쟁장면 부분에서만 환호했다. 이를 지켜본 교사는 불을 켜고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면서 해설을 곁들여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같은 영화임에도 관람하는 분위기가 점차 엄숙해지더니 같은 장면에서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다. 이처럼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사실과 관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축구경기도 해설가가 없이 축구만 본다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목으로 책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세계관과 문화

세상을 보면 지식이 생긴다(view of the world), 그리고 그 지식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문화의 방향을 정한다(view for the world). 샤르맹의 '하녀'와 베르베르의 '하녀'는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를 그렸지만,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표현이 무척이나 상반된다. 부엌일을 하면서 심드렁하고 지친 표정의 하녀와 부엌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듯 정성을 기울여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모습은 작가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건축도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효용성과 기능의 이름 다움이라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건축물과 비교하면 600년 동안 건축했다는 쾰른 대성당(Cologne Ca-

thedral)은 기능보다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독일인은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도 세계관은 드러난다. 세계적인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과 무역회관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뉴욕의 맨해튼과 그 주변 도시경관의 스카이라인은 세상의 중심이 돈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피렌체의 스카이라인은 두오모 성당을 중심으로 상하가 나뉘면서 위쪽은 은혜의 영역이고, 아래쪽은 세상으로 구분되도록 설계되었다.

비틀스의 '이매진(Imagine)'은 쉬운 멜로디와 히피의 세계관을 축약하여 드러낸 가사로 대중의 감성을 강력하게 파고들어 히트곡이 되었다. 미국의 예술사학자 한스 로크마크는 1960년대에 비틀스와 같은 강력한 복음가수가 있었다면 미국문화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레논은 당대 최고의 스토리텔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러는 광고다. 광고는 비주얼에서 시작하여 함축적이고 강렬한 카피라이트를 통하여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바라볼(look at) 책이 아니라 통해서(look through) 볼 책이다."라고 말했다.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인도에서 40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뉴비긴은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에 통탄했다. 뉴비긴의 눈에 비친 영국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은 사라져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안경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 안경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을 때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만큼 삶에서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성경의 세 가지 진리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의 프리즘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견디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설렘과 비전이 보여야 한다. 실제로 천국은 우리 앞에 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교육과 세계관: 스토리와 비전**

스토리와 비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없다. 세상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진실 되고 강력한 것이 성경이다. 모든 교육은 세계관 교육이며 세계관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다윗, 요셉은 이미 죽고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나오는 아무 상관 없는 인물로 다가온다면 그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한다. 역대기와 같은 족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들은 족보를 통하여 스토리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그 족보는 신약의 처음에 다시 연결되어 시작된다. 그 신약성경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 또한, 그 족보는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신약성경의 복음서 어디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이다.



신국원 총신대학교 신학과 철학 교수, 분당중앙교회 협동목사이며 일리노이 대학원 연구교수이다. 저서로는 "니고데모의 안경",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등이 있다.



Worldview Special

# 기독교교육을 생각하다

-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걸까?
-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은 아닐까?
-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
-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요즘이다.
- 아니 우리마저 '성경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 성경은 가르침에 대해 무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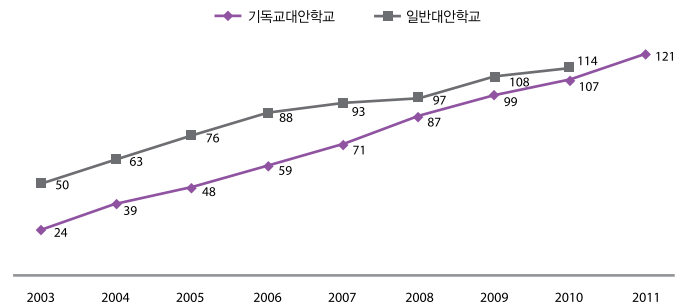
#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황과 진단

◎ 박상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 교수)

한국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은 수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2006년에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독교 대안학교 가이드>라는 책으로 출판한 바 있다. 그 후 5년 동안 어느 정도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되었고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도에 제2차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되는 것은 급속하게 기독교 대안학교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6년 당시 기독교 대안학교의 전체 수는 59개교였는데, 2011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12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

로서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해에 평균 12개교 이상 설립된 것인데,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소위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먼저 기독교 대안학교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와 일반 대안학교 설립학교 수 추이

일반 대안학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일반 대안학교가 2007~2010년까지 26개, 평균적으로 약 8개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대안학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독교 대안학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학교 수에 있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수가 일반 대안학교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도에 개교한 기독교 대안학교도 10개나 되어서, 2012년 6월 현재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131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 확장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006년 실태조사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2011년 실태조사에서는 강원도에 5개교, 제주도에 4개교가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5년 사이에 이들 학교가 설립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로 이제는 전국의 모든 도에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체
2011년	13	53	5	17	18	11	4	121
기독교대안학교	10.7%	43.8%	4.1%	14.0%	14.9%	9.1%	3.3%	100.0%
2006년	3	21	0	9	7	3	0	43
기독교대안학교	7.0%	48.8%	0.0%	20.9%	16.3%	7.0%	0.0%	100.0%
2010년	22	40	8	10	16	17	1	114
일반대안학교	19.3%	35.1%	7.0%	8.8%	14.0%	14.9%	0.9%	100.0%

<표2>기독교 대안학교 지역별 분포

이들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활발한 설립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자.

## 1) 기독교 국제학교의 증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면 어떤 유형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인가? 설립된 학교의 이름을 통해서 대략적인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의 이름은 학교의 이념과 교육목적 등 그 학교의 정



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교명에 들어간 단어를 중복으로 검사하여 횡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교명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기독교' 또는 'christian'이다. 121개의 학교 중 33개(27.9%)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표3>. 그다음은 '국제' 또는 '글로벌'로, 32개(26.2%)이다. '기독교'를 교명에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국제, 글로벌'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기독교 국제학교'가 많이 설립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대안교육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로 기독교 대안학교가 국제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학교=121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체
2011년	13	53	5	17	18	11	4	121
기독교대안학교	10.7%	43.8%	4.1%	14.0%	14.9%	9.1%	3.3%	100.0%
2006년	3	21	0	9	7	3	0	43
기독교대안학교	7.0%	48.8%	0.0%	20.9%	16.3%	7.0%	0.0%	100.0%
2010년	22	40	8	10	16	17	1	114
일반대안학교 <sup>2)</sup>	19.3%	35.1%	7.0%	8.8%	14.0%	14.9%	0.9%	100.0%

<표3> 기독교 대안학교 학교명 분석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시대 속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독교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국제' 또는 '글로벌'이라는 교명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적 국제성'을 교육 가치 속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학생들이 사는 시대가 세계화 시대이고 거기에 따른 국제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미국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성이 영어를 강조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외국 유학 준비학교의 형태를 띠거나 원어만 강사를 통해서 영어 몰입교육이나 영어실력을 높이는 교육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문화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다름을 이해하고 선진국만이 아니라 저개발국가에 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해 섬김과 선교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도시형 학교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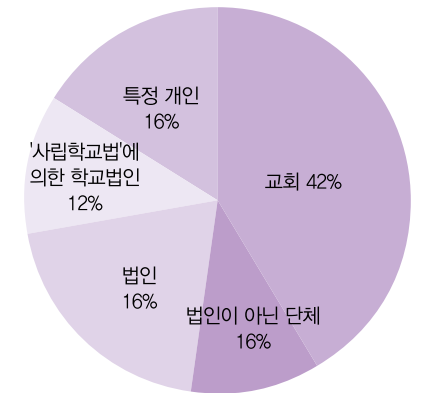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도시형 학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전원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과거에는 전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도시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설립된 역사에 따라 도시형, 전원형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학교는 전원형이 67%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 역사가 짧을수록 도시형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다 '대안성'이 강조되는 학교, 즉, 생태, 노작, 평화, 자율 등 자연환경 속에서 근대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추구하는 학교보다는 도시 속에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위의 표(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올수록 기숙형 학교보다는 통학형 학교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광역시에 있는 학교는 인접한 도에 편입해 분류하였다.

이는 '2010 대안학교길라잡이'를 근거해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14개 포함되어 있다(이하 생략).

## 3) 교회 설립 학교의 증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이 늘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회가 설립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꾸준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가 설립한 경우가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강하게 인식하고 종래의 주일학교 차원의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학교에서도 명실상부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의 '기독교적 교육'의 외연 확대, 그리고 신앙과 학업을 통합하는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교단별 분포를 보면 오른쪽 [그림3]과 같은데, 여전히 장로교가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통합 교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모든 교단이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동참하고 있어서 범교단적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운동이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11년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주체



[그림] 2011년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교회 교단 분석

기독교 대안학교의 활발한 설립과 이로 말미암은 기독교학교의 증가는 그만큼 이 땅에 기독교교육운동이 확산하고 있고, 그동안 교육고통으로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적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확장은 그만큼 질적 성숙을 요청하고 있음을 동시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대안교육이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하여 기존의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왜곡된 교육에 대한 진정한 대안적 교육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적으로 기독교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기독교 대안학교 자체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공동체적인 나눔과 연대를 통해서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게 될 때 기독교 대안학교는 더불어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계기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땅의 교육고통을 치유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상진 장신대학교 교수이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공동대표로 섬기면서 오늘날의 교육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과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교회교육 현장론", "기독교교육과 사회" 등이 있다.





#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실태와 세레 유·무와 신앙경력과의 관계

정희영(총신대 교수)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을 위한 세계관 교재 개발을 위해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을 편역하기로 했다. 이 책은 철학, 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생물학, 정치학, 법학 등의 학문을 기독교, 마르크시즘, 이슬람, 뉴에이지, 세속적 인본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1990년도에 처음 출간되어 몇 번의 개정판이 나왔다. 내용이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또 미국인을 위해 쓰인 책이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내용의 구성을 새롭게 작성하기로 연구진들과 협의하였다. 연구진들은 청소년 세계관 전문가인 CTC의 대표 유경상, 명지외고의 역사 교사이며 목사인 강효식(Ph.D.), 총

신대 역사교육과교수 권태경, 전 두레고등학교 교장 문태순 등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 세계관 교재 개발은 2010년 8월 30일에 첫 모임을 시작하여 여러 번의 모임을 통해 각 장의 내용 및 형식의 구성, 용어의 통일 등을 논의하였고 이상의 것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이상의 것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맞게 더 쉽고 명료하게 작업하는 일이 남았으며 8월 중에 속초의 라브리에서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교재개발에 앞서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의 세계관

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실태와 세레 유·무와 신앙경력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를 총신대의 권태경 교수와 함께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레의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경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이다.

연구 도구는 설문지로서 5명의 학자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을 비교 분석한 것에 근거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805명이며 자료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 그리고 one-way ANOVA로 통계처리 했다. 빈도분석은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망 시에 일어나는 일, 인간 역사의 의미, 도덕의 기초,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분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레의 유·무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가 시행되었고, 신앙연수와 기독교 세계관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가 시행되었다.

## 1.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실태

첫째,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회교육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이 잘 교육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의 계속성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떨어졌다.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신론적 사고를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식을 못 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방법이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견해를 낳게 된다. 따라서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교육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실태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80% 정도



가 잘 알고 있었으나 20% 정도의 학생들이 그 기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초등학교부터 진화론에 근거를 둔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다 보니 교회에서 창조론에 대해 배웠음에도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간의 사망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삼 분의 일이 넘는 응답자가 원죄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원죄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교육에 문제가 있거나 교육에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도덕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여러 항목에서 대부분 반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덕의 기초가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주의를 지향하고 절대성을 부정하는 오늘날 사회의 풍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특성상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그 미디어가 대중문화를 포함하며, 대중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인간 역사의 의미에 대한 실태에서 아담의 실재성 부분에서 응답자의 26%가 부정적으로 답을 했는데, 이는 믿음과 머리로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며 인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본주의의 뿌리에 깔린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며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대체로 진화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예배 시에 성령의 동행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5% 내외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교회교육(특히 장로교)이 교리에 치중하는 한편, 삶에서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 2.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례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례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여섯 항목 가운데 한 항목에서만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세례 전 베풀어지는 교육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유아세례자가 75%나 되었다.

세례를 전후로 한 교육적 중요성은 교회 역사에서 세례 예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세기 초엽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세례예비자를 위한 교리문답 교육학 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종교 개혁기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리문답서가 작성되었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등의 수많은 교리문답이 어린이의 신앙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세례의 중요성과 유아세례와 그 후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분명 세례 베풀기 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유아세례 시 이루어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대한 서약과 교회의 교육적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이며 언약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세례와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

된 결과라 하겠다.

## 3.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경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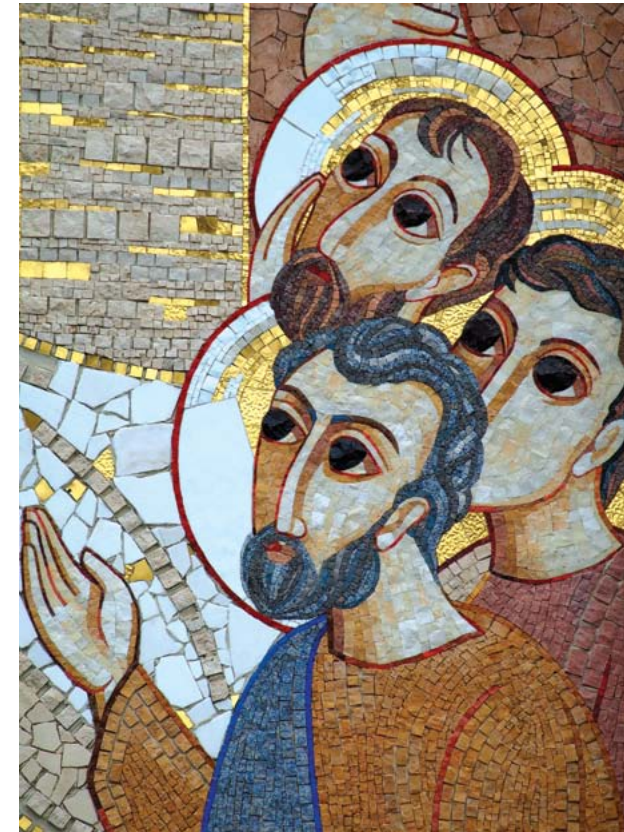
신앙경력에 따라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여섯 항목 가운데 한 항목에서만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5개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앙경력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앙경력이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일반 사회에서 받는 교육을 능가하지 못하거나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오히려 교회에서의 교육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리에 치우친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실천적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교회에서의 교육보다는 일반 사회나 학교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화론과 포스트모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 교육이 요구된다. 교회 교육과정 중 진화론과 창조론의 비교 연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과 기독교인의 삶과 같은 내용을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세례 전 교육이 강화되고 그 내용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 부모와의 서약이 당시의 서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신들에



게 자녀의 신앙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에만 행사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이 아니라 교회교육의 핵심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에서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교회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회교육의 시간이나 내용, 방법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정희영 충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이며 한국유아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유아교육론",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근현대 교육사조" 외 다수가 있다.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기초과정 8기 선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TS, CGN-TV, 극동방송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1인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최고의 강사진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인용(삼성전자), 신국원(총신대), 성인경(라브리), 박상은(안양샘병원), 한정화(한양대), 김승욱(중앙대), 강진구(고신대), 노영상(장신대), 임춘택(경남대), 박희주(명지대), 이승엽(서강대), 이경원(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장유진(전 MBC W제작PD), 박정현(한예중), 오한웅(PD), 김도태(스튜디오408), 이민숙(방송작가), 이정아(CGN-TV) 등

### 엄선된 커리큘럼

기독교세계관 기초, 기독교세계관과 커뮤니케이션, 기독교세계관과 문화,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기독교세계관과 경제, 기독교세계관과 과학, 설득커뮤니케이션, 영상연출, UCC제작, 교회영상 제작, 소셜미디어의 이해, 조명의 이해, 디지털 사운드의 이해, 다큐멘터리 제작,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개인 영상연출, 영상캠프(3박4일), 영상포트폴리오 제작 등

지원자격 :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세례교인, 74년 이후 출생자)

접수기간 2012.8.6(월) ~ 9.20(금) 면접전형 2012.9.22(토) 합격자 발표 2012.9.27(목)

교육기간 2012.10.6 ~ 2013.2.4 매주 토요일 오후 1:00~6:00 (양재동 서울국제크리스천 아카데미)

선발절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성적우수자 시상 / 수료증, 추천서 발급

수강비: ~~1,500,000원~~ >>> 등록금: **300,000원** (본 프로그램은 수강비 전액 외부후원으로 등록금만 납입)

cmca.or.kr 문의: 02)754-8004 cmca@worldview.or.kr



###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

제40335호

발송유효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월드뷰 담당자 앞

-









##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소개 연구 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상반기 동안 가졌던 교육분과의 월례회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에는 신년포럼으로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와 <교육과정 디딤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Western Trinity 대학의 Harro Van Brummelen 교수를 모시고 "My Journey Becoming a Christian Educator"라는 주제로 그가 기독교 교육과정학자로 서기까지 개인적 성장배경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 김정효(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의 교육분과는 기독교교육학자들의 학문공동체로서 기성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의 장으로서 역할 뿐 아니라 다른 일반학회와는 다르게 특별히 연구후속세대를 육성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분과활동을 통해 연구후속세대가 학문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수련 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교사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주된 교육분과의 활동은 학기 중에 하는 월례회(약 3번 정도)와 학술대회인데, 춘추계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석박사과정학생들의 연구발표 세션이 따로 비중 있게 할애되어 있고 우수연구에 대한 시상제도까지 있다.

교육분과 월례회는 올해는 2012년부터 내년 2013년 상반기까지 "교육과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학교 교육이 연거푸 급하게 이루어진 2007, 2009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놓여있다는 점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국외선교학교 그리고 국내 미션스쿨 회복의 핵심에 기독교교육과정이 놓여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상반기 동안 가졌던 교육분과의 월례회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에는 신년포럼으로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와 <교육과정 디딤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Western Trinity 대학의 Harro Van Brummelen 교수를 모시고 "My Journey Becoming a Christian Educator"라는 주제로 그가 기독교 교육과정학자로 서기까지 개인적 성장배경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개인적 신앙이 학문에 배어들고 기독교적인 이론을 체계화하기까지 그의 신앙과 학문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벤 브루멜른 박사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는 유럽에서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 나치 하에서 부모님께서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고 사셨는지 보고 자라면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을 배웠다. 이후 미국에 건너와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하고 기독교사로 공립학교수학교사와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코디네이터와 교장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역으로 그것이 어떻게 직업과 학문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게 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교육과정개발에 노력해온 두 분도 함께 모셨다. 기독교사세움터의 신기영 박사와 평택중학교 과학교사인 소정화 선생님도 기독교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자신들의 씨름과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누어주셨다. 이날 포럼은 단순히 교육자들의 회고담을 듣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연구와 학문이 삶을 반영하

고 그것을 통해 현실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학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하는 자리였다.



최근 기독교교육과정 재구성에 채택되어온 서구의 여러 이론이 우리의 교육맥락과 사고구조와 신앙적 배경과는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성과 함께 우리의 몸에 맞는 이론이 자체 내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신년포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일반교육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의 이론을 기용하여 우리 교육의 장에서 활용하려는 이론소비자로서의 머물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 기독교교육과정 재구성에 채택되어온 서구의 여러 이론이 우리의 교육맥락과 사고구조와 신앙적 배경과는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성





과 함께 우리의 몸에 맞는 이론이 자체 내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신년 포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와 한국교육이 가지는 저력으로 우리가 기독교교육계의 현장개신과 이론개발에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는 데에 기학연이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외에 4월 2일에는 신기영 박사(기세터대표)의 Why Question에 의한 기독교교육과정개발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5월 7일에는 Julia Harper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를 모시고 "Effective learning and teaching: Integrating problem based learning and brain based learning"에 대해 들었다.

신 박사의 교육과정개발모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 핵심주제를 성경적으로 재규정하는 단계 2)재규정된 주제를 핵심지식, 행동기술, 핵심태도 등의 학습 목표로 진술하는 단계 3)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4가지 인식 단계 즉 경험, 이해, 분별, 적용의 단계에 따라 학습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모형은 6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학습주제를 성경적으로 재규정할 때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 이후 직접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오는 주지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교육활동이 왜 필요한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과 성경 묵상을 통한 인격적 깨달음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구이론의 기계적이고 전략적인 적용과는 매우 달라 보였다.

Harper 교수의 강의는 최신이론이란 점과 기독교교육에서 교수이론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강의에서 학습은 뇌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학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교육학자들은 이해해야 하며 뇌는 항상 의미와 패턴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 맥락에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사고력을 진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감성적인 요소가 간섭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와 한국교육이 가지는 저력으로 우리가 기독교교육계의 현장개신과 이론개발에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는 데에 기학연이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2학기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 교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2012학년도		
9월 월례회(17일 예정)	강사	소정화/박상호 교사(CFCC:기독교교육과정연구소, 김정효(이화여자대학교))
	주제	2009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사 해설서 개발연구: 총론을 중심으로
10월 월례회(8일 예정)	강사	김재춘 교수 (영남대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개정관계자)
	주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기독교교육
11월 월례회(12일 예정)	강사	김윤권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주제	2009 개정 수학교육과정과 기독교교육
2013학년도		
3월 월례회 (11일 예정)	강사	김영숙 교수 (총신대학교)
	주제	영어교육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
4월 월례회 (8일 예정)	강사	김중락 교수 (경북대학교)
	주제	역사교육과 기독교교육
5월 월례회에서는 과학교육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월례회 활동 외에 교육분과는 기독교 교육 관련자의 메일리스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단체와 함께 월례를 바탕으로 축적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의 월례회는 학기 중에 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5시~7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지하철 2호선 이대역) 4층 세미나실에 모이고 있다. 시간절약을 위해 모임 중 간단한 저녁을 하며 모이고 있는데, 참여비(학생제외)는 5,000원이다. 올가을 학술대회와 내년 상반기의 학술대회에서도 각 기독교학교들의 특징적인 교육과정들이 발표되거나 교육과정재구성의 속의 과정에 대한 사례들이 발표된다면 좀 더 심도 있고 실제적인 기독교교육과정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관계자들의 관심과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기독교사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기대한다(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정인숙 박사 010-7499-7253).



**김정효**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이며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다. 기독교교육과정개발, 초등교육, 도덕 및 인성교육, 교육개발 및 선교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저서로는 "세계관으로 본 교육(2010)," "아동리더십(2007)"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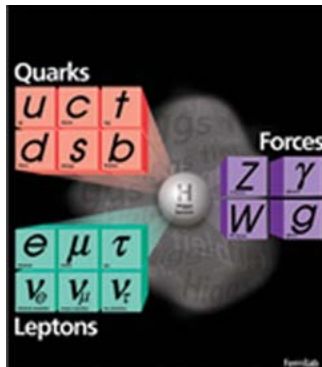




# 힉스입자와 그리스도인

☞ 양승훈(번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2012년 7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거대강입자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LHC)에 설치된 두 검출기(ATLAS, CMS)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힉스입자(Higgs particle)일 가능성이 높은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힉스입자는 같은 장소, 같은 양자상태에 여러 개의 동일한 입자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boson) 입자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힉스입자는 힉스보존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힉스입자는 만물을 구성하는 17개의 기본 입자들 중 마지막으로 발견된 입자로서 힉스입자와 그와 관련된 힉스장(Higgs Field)의 존재는 왜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Standard Model)에 등장하는 다른 기본입자들이 질량을 갖는지를 설명합니다. 표준모형이란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73년에 개발된 이론인데 이 모델에서는 기본입자로서 쿼크(quark) 6개, 경입자(lepton) 6개 등 12개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4개의 매개입자(gauge particle, force), 그리고 이들 입자들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입자 등 총 17개의 입자로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즉 이 17개 입자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만든다는 것이 표준모형의 핵심 개념입니다.

힉스입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태초의 대폭발 순간에 해당하는 초고온, 초고압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가속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ERN의 LHC와 같은 어마어마한 가속기가 없었다면 힉스입자의 발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피터 힉스가 자기 생전에 힉스입자가 발견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 말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생전에 힉스입자를 생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초대형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가속기를 보유했던 미국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페르미랩)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힉스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가속기링 길이만도 6.28Km에 이르는 페르미랩의 가속기 테바트론(Tevatron)도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페르미랩 소장을 역임하고 중성미자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레더만(Leon Lederman)이 힉스입자가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자 역정을 내는 의미로 자기 책 제목을 “제기랄 입자”(The Goddamn Particle)라 붙인 것도(책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어서 후에 출판사에서 ‘The God Particle,’ 즉 ‘신의 입자’라고 수정해서 출간했지만) 그만큼 힉스입자를 찾기가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둘레가 무려 27Km에 이르는 CERN의 LHC 구조

기본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던 17번째 기본입자 힉스는 지금까지 관측할 수 없었고, 태초의 대폭발 때에만 잠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힉스입자는 처음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에 존재하다가 기본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진 가상적인 입자입니다. 그러므로 137억년 전 우주가 처음 창조될 때를 입자가속기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힉스입자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CERN에서는 LHC를 이용하여 광속에 가깝도록 가속시킨 양성자들을 충돌시킴으로 극히 작은 스케일이지만 대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즉 현재의 태양보다 10만배 정도 더 뜨거운, 극히 높은 밀도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양성자들이 “부서질 때” 그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 힉스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CERN의 힉스입자 연구결과 발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폭발 이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는 몇몇 미국 근본주의 단체들의 영향을 받아서 대폭발 이론은 무신론이고 유물론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라는 오해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발 이론에 대해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대폭발 이론 속에 무신론이나 유물론을 끼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폭발 이론 자체가 마치 무신론이나 유물론인 듯이, 혹은 대폭발 이론은 반드시 무신론이나 유물론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대폭발의 방법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대폭발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대폭발을





통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개념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주를 만든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얼마든지 대폭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에 기본적인 개념이 제시된 대폭발 이론은 100여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정교하게 수정, 보완된 이론입니다. 처음 제시된 원시적인 대폭발 이론은 1950년대를 지나면서 가모브(George Gamow) 등에 의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듬어졌고, 우주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대폭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에 발견된 우주배경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를 필두로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CERN의 발표는 아직도 물리학의 영역에 속한 초기 우주 연구 중에서 대폭발 이론을 지지하는 가장 분명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학적 언어와 신앙적 언어는 구별해야 합니다. CERN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힉스 입자의 질량이 약 125~126GeV(1GeV=10억 eV)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CERN에서 이 질량영역에 속하는 입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실험적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힉스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99.99994%로서 300만 번의 실험에서 한 번 정도 오류가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힉스입자 연구를 진행한 CERN에서는 '힉스 발견'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힉스에 일치하는 새 입자 발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주의 깊게 연구를 해도 인간이 하는 연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학 활동의 모습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지 않는, 다시 말해 잠정성(tentativeness)이 없는 주장은 더 이상 과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포퍼(Karl Popper)의 용어를 빌리자면 반증이 가능하지(falsifiable) 않은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자기 이론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자연에 대한 설명이라 해도 더 이상 과학적인 언급이 아니라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신앙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확률을 99.99994%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의 지성을 자연과 초자연 모두에 대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CERN에서 발표한 것처럼 금년 연말 쯤 되어 힉스입자의 존재가 완전히 증명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주 창조의 방법으로 현대 물리학이나 우주론에서 제시하는, 대폭발이 아닌 제 3의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처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메커니즘에 의해 우주가

창조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 영역에만 묶어 두는 것이나 자연적 영역에만 묶어 두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초자연과 자연으로 나누는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무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생기는 것이나 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도 관여하시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현장에도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동안 몰랐던 우주의 신비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발견의 실용적 이익을 넘어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CERN의 힉스입자 연구발표는 그동안 표준모델에 근거한 대폭발 이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과를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힉스입자의 존재에 전 세계가 흥분하는 이유는 현대 물리학자들이 대폭발 이론을 비롯하여 물질의 궁극적인 기원과 구성에 대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쌓아 온 체계가 옳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힉스입자 발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힉스는 “저는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된 것에 놀랄 뿐입니다. 이는 연구자들의 전문성과 정교한 기술이 함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힉스입자의 발견은 LHC와 같은 100억불(약 11조원) 이상의 입자가속기와 전 세계 수천 명의 전문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힉스가 처음 이 입자의 존재를 예언했던 1964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연구환경입니다. 그래서 발

표장에서 힉스는 거듭 언론과의 인터뷰나 코멘트를 사양하면서 스포트라이트는 자기 이론이 옳음을 증명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는 힉스입자의 발견을 기뻐하는 힉스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함께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과학자들의 연구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면서 의심초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과학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떠나 저들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관측, 실험, 계산을 통해 발견한 자연의 대칭성, 통일성, 조화 등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의 증거들은 아무리 기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다만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슬그머니 비집고 들어오는 인간의 자량과 교만, 과학주의나 물질주의 등 이데올로기들만 주의한다면 누가, 어느 곳에서 발견하든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승훈** VIEW(벤크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 물리교육과, KAIST 물리학과에서 한반도 물성을 연구했으며(MS, Ph.D.)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과학사(MA)를, 휘튼대학에서 신학(MA)을 공부했으며, 반도체 물리학 연구에 대하여 창조론, 기독교 세계관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서로는『물리학과 역사』,『과학사와 과학교육』,『창조론 대강좌』,『기독교적 세계관』 등이 있다.





## 청소년 드라마로 들여다 본 교실은...

어쩌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청소년 드라마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추억이나 자녀가 전하는 겨우 몇 마디만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와 교실 속 현실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박진규(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지난 7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와 KBS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교육이 주무인 정부부처와 방송사가 협조할 일이 뭘까 궁금해서 알아보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겨울에 방송될 청소년 드라마를 함께 제작하기로 했다는군요. 텔레비전 드라마가 학교 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이렇게 내놓고 “가르치려 드는” 드라마에 정작 학생들은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의심스럽지만, 정부와 방송사가 나서야 할 정도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진 건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 장르를 흔히 ‘청소년 드라마’라고 부르는데요, 사춘기를 앓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았다고 해서 ‘성장 드라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쩌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청소년 드라마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추억이나 자녀가 전하는 겨우 몇 마디만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와 교실 속 현실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구 세계를 그리는 드라마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을 먹고 사는 드라마는 허구와 실제 사이의 교묘한 긴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분위기나 교실 속 학생들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드라마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1970년대의 <알개> 시리즈처럼 고등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있었지요. 당시 서슬 퍼런 독재정권 속에서 병영을 꼭 빼닮은 학교와 까만 교복 속 청소년들의 소소한 일탈과 이성 교제를 유쾌한 톤으로 그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0년대까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권이 과외나 입시학원 등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규제한 시기였는데,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은 당시에 이미 있었지만 그나마 교육에서의 표면적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때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텔레비전 드라마는 청소년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드라마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방송된 <사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TV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배우 정준이 어수룩하면서도 귀여운 주인공을 맡았고 주현과 선우은숙이 아빠와 엄마 역할을 했지요. 춘천을 배경으로 중학생들의 삶을 잔잔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렸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사춘기> 속 청소년들은 너무나 순수해 보입니다. 신체적 변화, 이성에 관한 관심, 그리고 성적 고민 등 전형적인 사춘기의 징후를 보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곁에는 항상 친구와 가족이 있고 그들과 함께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된 <나>라는 작품도 꽤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방송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였지요. 지금은 스타가 된 최강희, 김래원, 안재모 등이 풋풋한 학생으로 출연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두발,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는 등 학교 내 병영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정착되어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 드라마 <나>가 보여주는 학생들의 고민은 주로 관계성에 있었습니다. 선후배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주된 화두였지요. 학교 방송반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우쳐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 교육은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입시 “전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만큼 공교육의 자리도 위협을 받게 되지요. 1980년 27.2%, 1990년 33.2%에 머물던 대학진학률이 2000년 68%가 되더니 2005년부터는 8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만큼 학력과 학벌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며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하게 된 청소년들에게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SBS 드라마스페셜 <유령>

이 시기에 청소년 드라마는 시리즈라는 형식을 씁니다. 총 네 편의 <학교> 시리즈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세 편의 <반올림>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송되었지요. 이때부터 청소년 드라마는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성적경쟁의 장이 되면서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지요. 소위 ‘문제아’들이 등장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겪는 방향과 일탈이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반올림3>에서는 아예 문제아들만 모아 놓은 ‘특별반’을 설정해 그들의 이야기만으로 꾸려가기도 합니다.

2008년 가정의 달 특집극으로 방송된 단막극 <정글피쉬>는 2년 뒤 <정글피쉬2>라는 이름으로 총 8편의 미니시리즈로 재탄생하는데, 특목고에서 벌어지는 시험지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학생들의 갈등을 그려냅니다. 제목처럼 이들에게 학교는 약육강식의 원리만이 작동하는 “정글”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런 학교가 주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에는 <공부의 신>, 2011년과 2012년에는 <드림하이> 1과 2가 각각 방송되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판타지의 성격이 강한 드라마였는데, <공부의 신>이 명문대 입학 위한 경쟁에서, <드림하이>가 요즘 최고의 직업이라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두 편 모두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 성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짓는 현실을 비꼬며, 각고의 노력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

를 담아냅니다.

가장 최근에 청소년을 다룬 드라마는 <유령>일 겁니다. 이 드라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배경으로 한 미니시리즈로서, 청소년 드라마는 아니지만 7, 8회에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요즘 우리를 기승 아르게 하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학생들의 자살을 함께 엮어냈는데, 학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명문대뿐 아니라 외국 유명대학에까지 학생을 배출하는 최고 학교인 ‘성연고’에서 하나둘씩 학생들이 자살합



니다.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은 이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성연고는 학기당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귀족학교’로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이 자기보다 장학생 후보 앞순위에 있는 친구들을 없애기 위해 꾸민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아이는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짓밟히기 싫으면 먼저 밟으라면서요! 저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에도 성연고의 야간자율학습 교실에는 감독교사의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밟히고 싶지 않으면 밟고 일어서라.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경쟁자다.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 세상이다.”

드라마 속 청소년들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너무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 자녀만큼은 잘 될 거라며 애써 외면한 교육의 문제가 이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버린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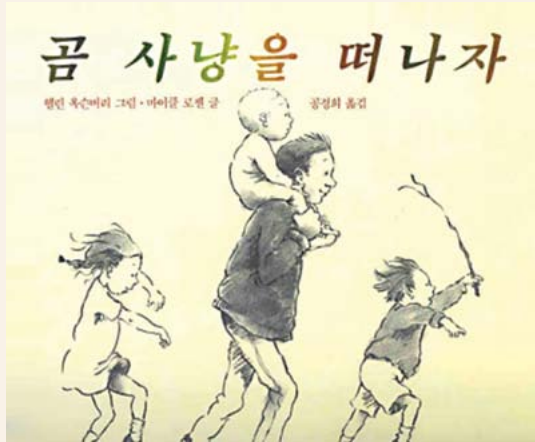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에게도 교육의 문제는 “아킬레스건”과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로 생기는 부모들의 갈등,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그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 신앙보다 학교성적을 앞세우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바라는 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 중 교사의 입으로 흘러나온 “남을 밟고서라도 경쟁에 이겨야 한다”는 말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의 기도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네 몫을 할 수 있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이 들리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르침을 포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그림책

『곰 사냥을 떠나자 We're Going On a Bear Hunt』

헬렌 옥센버리 그림 | 마이클 로젠 글 | 공경희 역 | 시공사 출판

현은재(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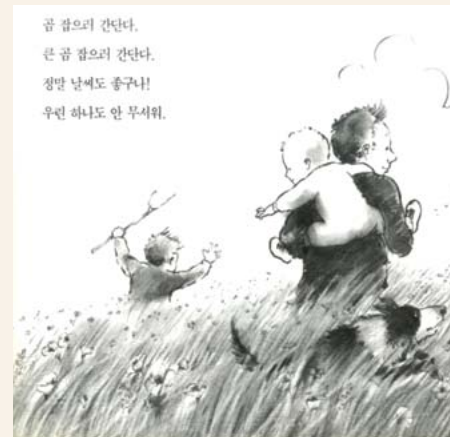
헬렌 옥센버리의 『곰 사냥을 떠나자』는 그림책 읽기가 공감각적 사고, 감정 이입, 놀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이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펼쳐 보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림책 연구자들이 발견한, 부모와 자녀의 그림책 읽기가 제공하는 교육적 유익은 이 책에서 소개된 생각의 도구와 일치합니다. 공감각적 사고는 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보면서 유아는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유아는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감촉을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아들은 그림책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고 긴장하고 슬퍼하는 감정 이입을 경험하며 때로는 등장인물의 동작을 흉내 내면서 그 상태와 기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 읽기 행동이 보여주는 특성은 결과

구트벤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사용한 13가지 생각의 도구를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성인인 이어령 선생님은 이 책을 21세기 한국을 창조해 나갈 미래 인재들에게 쥐어 줄 ‘보물지도’라고 극찬하였으며 대학에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수많은 강의에서 이 책을 교재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그 학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통합」에서 저자는 “통합적 이해는 감각적 인상과 느낌, 지식과 기억이 다양하면서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통합적 이해의 정의를 내린 후 “생각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감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성이 뛰어난 과학자, 예술가, 시인들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모든 감각을 종합하여 사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처드 파인먼과 같은 수학자는 글자들에서 다양한 색을 보았으며 칸딘스키에게 색채는 소리와 운동 감각적 느낌, 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색의 맛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조지아 오키프(바이올린 연주자), 글을 쓰면서 음악을 느꼈던 해럴드 핀터(극작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색을 지각했다는 데이비드 호크리(화가), 어떤 사물을 평상시와 다른 방법으로 만졌을 때 색을 보았던 캐럴 Z. 스티(화가) 등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각교차현상의 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만이 공감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의 논지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공감각적 사고가 필요하며 훌륭한 교사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과정이 우선시되며 몰입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놀이의 특성과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감정 이입 현상은 『생각의 탄생』에 소개되는 8번째 생각도구로, 놀이는 11번째 생각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헬렌 옥센버리의 『곰 사냥을 떠나자』는 그림책 읽기가 공감각적 사고, 감정 이입, 놀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이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펼쳐 보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 소년이 앞장을 서고 있으며, 그 뒤에는 아기를 목말 태운 아빠, 그다음엔 어린 소녀, 그 뒤엔 엄마같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과 입 부분에 흰 털이 있는 검은 사냥개가 차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두 어린 소년 소녀의 한 발은 땅에, 그리고 다른 발은 공중에 들려있어 그들의 행동은 걷는다기보다는 가볍게 뛰는 것에 가깝습니다. 곰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풍을 가는 듯한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면지에는 낮은 물결과 모래톱의 바닷가 아침 풍경이 그려져 있고, 표지 안쪽에는 길표지에 있었던 그 가족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첫 페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풀밭 속을 걸어가는 가족을 보게 됩니다.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풀밭이잖아!  
넘실대는 기다란 풀잎.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그다음 페이지의 그림이 그들은 풀숲을 헤치고 구렁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글 상자 안의 텍스트는 그들이 풀밭을 헤쳐나갈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하였습니다.



글 텍스트와 플롯의 반복 그리고 흑백과 컬러가 교차하는 그림이 어우러져 이야기에 리듬감을 더해 줍니다. 처음엔 풀밭이었지만 그다음엔 강물, 진흙탕, 깊은 숲, 눈보라, 동굴이 곰 사냥을 떠나 이 가족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굴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을 때...



정작 곰을 만나자 그동안의 결의는 간데없고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냥개가 가장 앞서서 뛰어갑니다. 오던 길 그대로 되돌아 집에 도착한 그들은 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허둥지둥 현관문을 닫고 그것도 불안하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침대 이불 속으로 숨어 버립니다. 그 이불 속으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인물도 사냥개입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다시는 곰 잡으러 가지 않을 테야.”라고 결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런 책은 어떻게 읽어줄까요? 책은 본래 청각적인 매체이지만 그림책은 글, 그림 언어로 이루어졌으니 청각적인 동시에 시각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는 부모와 자녀는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듣고 귀로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여기 쓰인 의성어들은 대부분 신체와 자연물이 접촉하면서 나는 소리(“사각 서걱!”, “땀병 텀벙!”, “치벌 철벌!” “부시락 부시락!”)이므로 독자의 촉각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 촉각이 동원되어 등장인물과 함께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각적 경험이 가능한 것은 이 작품에서 의성어의 선택,

글자체와 크기, 그림과 글의 레이아웃이 치밀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은 곰 사냥을 빙자한 놀이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곰 사냥은 ‘노래 부르기’,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오기’, ‘헤엄치기’, ‘진흙 밟기 놀이’,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유령 놀이’ ‘잡기 놀이’와 같은 유년기의 놀이가 뒤섞인 즐겁고 신이 나는 놀이입니다. 책을 읽는 유아들은 곰에 쫓겨 집으로 달려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들도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만 내놓고 있는 가족을 보며 이내 웃음을 터뜨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즐기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아기입니다. 이불 밖으로 눈만 내놓고 있는 가족들 틈에서 아기만 곰들이 인형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깐요.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뒤 면지의 그림까지 읽은 독자는 지금껏 전개된 가족의 놀이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앞 면지에 그려졌던 바닷가에 이제는 어둠이 깔리고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으며 그 모래톱 위를 곰이 어깨가 축 처진 채로 티벳티벳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무척이나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곰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혹시 너도 그들과 놀고 싶었던 거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의 집까지 따라왔던 거니?”

그림책 읽기는 어린 유아가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은 어느 가정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무엇보다 그림책 읽기가 본질적으로 ‘놀이’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부모의 존재입니다. 책 읽기를 산 오르기에 비유한다면 자녀가 산을 빨리 오르도록 재촉하는 부모가 아니라 산을 오르면서 길가에 아무렇게나 나고 자란 풀과 관목, 온갖 종류의 새소리, 이름 모를 들꽃과 굽이치며 흐르는 계곡물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산을 오르지만 한 자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산 정상에 도달할 순 있겠지만, 산이 품고 있는 풍성한 세상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학습하기 위해서나 글자 익히기를 목표로 하여 그림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자녀는 글자를 빨리 익힐지 모르겠으나(실은 많은 연구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가 선사하는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고대하던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와 함께 신 나게 곰 사냥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은밀히 자라는 씨, Monotype, Pop-up, 35x25, 2008년

## 이서미, 상상을 깨우는 그림

서성록(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이서미는 홍익대학교 판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갤러리 인데코 등에서 10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각종 아트 페어와 기획전 등에서 130차례의 단체전을 열었다. 동화책의 ‘팝업’ 기법을 화면에 도입하였는가 하면 프레스가 찍힐 때의 깊고 부드러운 효과를 장점으로 하는 판화의 일종인 모노타입을 애용하고 있다.

이서미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소설가가 있다.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작가 로이스 로리(Lois Lowry)다. 『별을 헤아리며』, 『기억전달자』 등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여 권의 작품을 저술했는데 그중에서도 『행복지킴이 키퍼는 한때 잘 나가던 광고모델로 재물도 쌓았지만, 지금은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평생을 행복지킴이로 살아가는 건공의 이야기이다.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날카로운 관찰과 엉뚱한 상상으로 시종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인생 유전’을 개에 비유하여 것처럼 쓸 수 있다니 로이스 로리의 기발한 상상력에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로이스 로리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독자를 사로잡는다면, 이서미는 우화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소설과 그림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실 새 없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쏟아내며 감상자를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삶의 무대를 마치 동화의 나라처럼 바꾸어주거나 잠시 잊고 있었던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주는 것이 마치 소설을 읽는 것인지 그림을 보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한다.

작가는 여행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 집과 거리의 표정을 정감있게 짚어낸다. <먼 길>에서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지루한 길을 지치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을, <마치>에서는 봄날을 맞아 숲길을 걷는 한 가족을, <자라다>에서는 30배, 60배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식물들, <눈부신 거리>는 가로수 옆 건물 안의 풍경을, <나비와 개>는 초록 잔디 위에 앉은 강아지 주위를 나폴거리리는 나비를 각각 실어냈다. <다른 세상>은 꿈과 현실을 따로 경계를 짓지 않고 버무린다. 사람을 태운 고래가 빙긋 웃으며 수면 밖으로 시원스레 물을 뿜어내고 있고, 그 아래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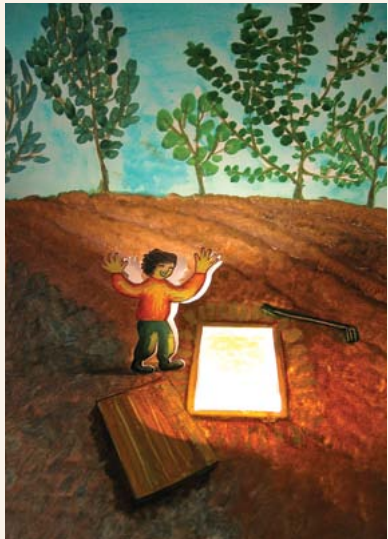
초 사이를 가르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푸른 색조는 싱그러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낙천성을 나타내준다. 팍팍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세상>을 자신만의 상큼한 조형언어로 펼쳐 보인다.

그의 작품은 어떤 화풍으로 묶을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굳이 분류하자면 ‘소박파’(Naive art)라고나 할까. 그 자신만의 개성에서 비롯된 독특한 스타일을 지닌다. ‘소박파’는 유파로서의 뚜렷한 형태를 띠지 않지만, 미술의 양식문제에 구애되지 않는, 자연과 현실의 시각적인 대상에 대하여 소박한 태도로써 건강한 예술의 추구를 작품의 기초로 삼는 작가들을 지칭한다.

이서미를 ‘소박파’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종래의 모델링이나 전통적인 기법을 떠나 순수하고 동화적인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아기자기한 구성이나 비례에 얽매이지 않는 재현, 주관적인 형태모사는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릴 적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을 시절의 구김살 없는 표현과 즉흥적인 필치가 돋보인다.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제각각 서로 다른 표정과 동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화면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준다. 또한, 발랄함과 생동감을 주기 위해 작가는 이미지들을 자르고 접고 붙이는 등 팝업 수법을 동원하여 동화 같은 인물표현으로 감상의 재미를 더해준다.







그의 작품 중에 무대로 걸어나오는 어린이를 축하해주는 <등장>이란 작품이 있다. 무수한 사람이 객석에 앉아 있고 부모인 듯한 인물이 조그만 통로로 걸어나오는 아이를 두 손을 들어 맞아주는 작품이다.

그의 작품 중에 무대로 걸어나오는 어린이를 축하해주는 <등장>이란 작품이 있다. 무수한 사람이 객석에 앉아 있고 부모인 듯한 인물이 조그만 통로로 걸어나오는 아이를 두 손을 들어 맞아주는 작품이다. 만화풍의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준다. 아이가 걸어나오는 무대는 '공연 무대'가 아니라 '인생 무대'이며 관객은 그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서미의 그림에서는 혼 혼한 이야기들이 꼭지를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팔팔 흘러나온다.

그의 작품의 한 축이 일상에서 비롯된다면, 다른 한 축은 성경에서 비롯된다.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의 작품세계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이서미는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그림을 알기 쉽고 재미난 이야기구조로 재구성한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나라 작가 중 성경 그림을 재해석한 작가들은 윤보 김기창, 김학수, 서봉남 등이 있었다. 이들 작가가 수태고지, 예수의 세례, 복음사역, 최후의 만찬, 책형, 부활 등 예수의 일대기를 화폭에 담았다면, 이서미는 비유의 예화만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그의 그림에는 예수의 초상이나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적 도상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서미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기독교 미술의 새 지평을 제시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평범한 풍경화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인다. 한 가족이 아늑한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품이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재봉을 피우는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바깥 풍경은 정반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이들 가족을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기세이다. 그러나 이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이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가 되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은밀히 자라는 씨>에서는 두 어린이가 땅에 앉아 새싹을 바라보는 광경이 포착된다. 뒤쪽의 농부는 황금빛 들녘의 벼를 수확하는 중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농부는 파종하고 김을 매고 거름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씨앗 안에 신비한 생명력을 주셔서 결실을 볼 때까지 돌보아주신다. 씨앗의 생명력도 그렇지만 밭이 단계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 땅으로 올라오는 것, 비를 뿌리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도 따지고 보면 환경의 도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작가는 <은밀히 자라는 씨>가 땅에서 올라오고 무럭무럭 자라며 결실을 보

는 단계까지를 한 화면에 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씨>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착안한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 밀짚모자를 쓰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한다. 이 그림도 얼핏 보면 평범한 농촌풍경을 형용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씨앗의 파종 위치를 눈여겨 관찰하면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농부 뒤에는 새들이 조금 전에 농부가 뿌린 씨앗을 쪼아먹고 있고 하단의 꽃을 경계로 길가와 자갈밭에 뿌려진 씨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금세 말라죽어 버린다. 지금 농부가 옥토에 뿌리는 씨앗만이 풍성한 결실을 기약할 수 있는데 마가는 이 사람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올라가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누가는 '백 배의 결실'만을 언급한 바 있다. 성경의 내용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아도 어디에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서미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한다. 보이는 모습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음미케 하며 일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작품의 하나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데 이 작품에는 무화과나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과수원지기가 등장한다. 내용인즉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삼 년이 지나도록 실과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찾아와 나무를 베어버리기 직전에 과수원지기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다. 그 후 무화과나무가 베어졌는지 유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작가는 일단 무성한 나무와 포도송이가 열린 포도나무를 대조함으로써 겉과 속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키가 큰 나무는 보기는 좋아도 내실이 없는 반면에 볼품 없는 포도는 주인의 기대대로 과실을 충분히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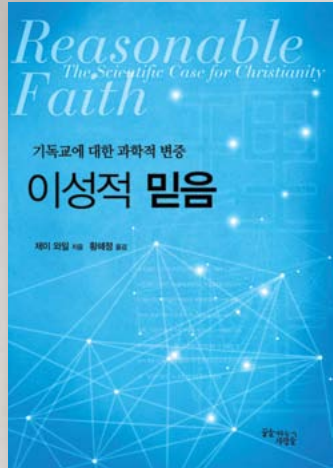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감추인 보화>는 인생의 행로를 따라가던 나그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곡괭이질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금은보화가 든 상자를 발견하고는 펴 듯이 기쁨 나머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밭의 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림은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인공은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벅찬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공의 안면에는 감출 수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다. 작가는 아마도 이 그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감격적 순간을 연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느끼는 환희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마음의 집'을 짓고 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의 집에선 슬픔과 비탄의 곡조가 새어나오지만 이서미가 머무는 마음의 집에서는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찬가가 멈추지 않는다. 그는 '가시'와 '영경귀'로 뒤엉킨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과 창의력을 자신의 예술적 원동력으로 삼는다. 가장 귀한 예술적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작가랄 수 있다. 그를 보면서 예술가는 흔히 말하듯 '뮤즈'에 영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작가가 평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준다. 그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작품을 보고 있자면 전기수(傳奇)의 구수한 입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절로 빠져들게 된다. 이서미는 '은혜의 광맥'에서 '금빛 예술'을 캐내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성적 믿음

제이 와일 지음 | 황혜정 옮김 | 꿈을 이루는 사람들 펴냄  
김두환 (인천대 교수)

과학과 신앙은 조화될 수 없는 것일까?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며 학문적 깊이를 확대 시키는 기독교 변증서이다.

1633년, 그때까지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지식체계를 뒤엎고, 새로운 지상과 우주의 운동체계를 정립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정에 서게 된다. 현대인들은 갈릴레오의 재판이야말로 종교와 과학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으며, 17세기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은 신앙과 과학 간 전쟁의 서막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기독교세력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한 방편일 따름이다. 1837년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후, 반기독교세력들은 진화론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비과학적이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그때부터 반기독교 세력들은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의 대결은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의 전쟁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고, 비과학과 과학의 대결 구도로 몰아갔다.

그러나 신앙과 과학은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과 같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되짚어 봄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대과학의 지평을 열고, 토대를 마련하고 완성한 근대과학자들을 꼽으라면, 역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등이다. 네 명의 공통점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 발견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만든 분들과 동시에 신앙의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외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진화론자들이 종교의 비과학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래 진화론자이었던 프레드 호일을 비롯한 과학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과학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필립 존슨이 주도하는 지적설계운동도 진화론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화학자인 제이 와일의 '이성적 믿음'은 무신론적 과학교육을 받은 청소년·청년에게 큰 반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과학을 맹신하는 장년에게 창조 진리를 깨우쳐줌으로써, 신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하실 것이며, 인간들이 이성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본서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권하며, 청소년들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필독서이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와 청소년 사역자는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한다. 본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들을 과학이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과학이 가리키는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1~5장까지의 1부에서는 과학적 변증에 대해서, 6~10장까지의 2부에서는 성경의 진리성과 하나님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주일학교에서 창조신앙의 교육에 관한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각 장의 요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1장의 '설계에 대한 논증'에서는 우연한 일치로 여러 화학적 요소들이 충돌하여 생명을 탄생하게 했다는 우연론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어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설계론을 설명하면서, 설계론에 맞서는 다양한 반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장부터 5장까지는 설계론에 근거하여, 과학적 사실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2장의 '아주 작은 전자로부터'에서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의 개념에서부터 원자의 결합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분자 화합체의 설명을 통해, 아미노산 결합체인 단백질과 DNA의 절묘한 결합으로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이 설계로 인하지 않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장의 '설계된 지구'에서는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면서, 신이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지구에서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기의 구성, 태양에서 나온 빛, 지구의 오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지구의 기류기와 자기장 등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절대로 우연으로 지구와 생명체가 조성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4장의 '생명체의 본질과 구조'에서는 생명체가 되기 위한 5가지의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5장의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서는 자연에서 설계된 생물체의 체내 구조와 습성을 살펴보면, 진화론의 무용지물과 설계론의 타당성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딱정벌레의 방어구조, 상어의 먹이섭취 습관, 인간의 눈과 눈물의 구성물, 공생 등을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1장부터 5장에 걸쳐, 과학적 변증을 통해 보인 신의 존재가 곧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6장의 '단연 으뜸인 성경'에서는 성경은 구성, 대중성, 생존력, 영향력 등에 있어서 독특한 서적임을 보이고, 특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성경의 유일성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저자는 이 세상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7장의 '성경의 역사적 타당성'에서는 고고학과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고서 검증, 내적 검증, 외적 검증의 관점에서 성경이 고대 역사의 다른 어떤 문서보다 역사적 정확성이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 8장의 '기적의 입증'에서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기적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성경에 기적의 사건들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이 역사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9장의 '성경의 과학적 진실'에서는 성경에 나온 기적을 초자연적 특성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적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사건들도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10장의 '창조자의 선견지명'에서는 성경에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후대에 정확하게 실현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쓰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자는 갈무리하면서,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자가 되도록 주입되었으며, 과학자로서 종교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며, 성경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대한 탐색 및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화학 분야 전문가인 저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적 자료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논지가 틀렸음을 보여주므로, 성경은 과학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최근에 과학 교과서에 실린 진화론 삭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의 문제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세계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한다.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세대일수록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본서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두환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이론핵물리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비엔에프 테크놀로지 책임연구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고려사이버대학 청소년학과/사회복지학과,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현)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객원교수 (경제/사회 물리학 연구), 현)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복잡계 연구실장(현) 한국통합상담연구원 부원장, 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 어물전

○○○ 대통령(어느 대통령인지는 마음대로 상상할 것)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에 초청을 받았다. 음악에 대한 대통령의 식견이 높지 않음을 안 보좌관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비키로 했다. 마침 연주 프로그램에 슈베르트의 <송어>가 들어 있기에 어떤 곡이 가장 마음이 들었는지 기자가 질문하면 그 곡이 가장 좋았다고 대답하라고 대통령에게 귀띔했다. “슈베르트”와 “송어”가 다 같은 자음으로 시작되고 곡명은 고기란 사실을 기억하라고 힌트도 주었다.

귀빈석에 앉아서 반쯤 듣고 반쯤 즐기고 하는 동안 연주회는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퇴장하는 길에 한 일간지의 문화부 기자가 다가와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곡이 가장 마음에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야당 당수나 재벌 총수 이름은 기억하는데 슈베르트나 송어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이름이 중학교 음악 시간에 들은 베토벤이었다. “어- 역시 베토벤의 <붕어>가 백미였어!” 대통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킁킁거리자 말을 잘못 했음을 직감했다. “아, 아니야, 내가 착각했어. 베토벤이 아니라 모차르트였지. 모차르트의 <문어>는 역시 역작이란 말이야! 정말 아름다웠지!” ☺



**경고** 이름이 “꼴”자로 시작되는 사람은 절대로 물고기를 소재로 한 명곡은 짓지 말 것.





# WORLDVIEW NEWS



## 이사회, 실행위원회 소집

동역회 정기 실행위원회(7. 17)와 이사회(7. 20)가 오후 6시에 이촌동 사무국 세미나실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업무보고와 정회원 총회 소집, 월드뷰 지속발행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창조론 오픈포럼 개최

제11회 창조론 오픈포럼이 개최됩니다. 창조론과 생명의 기원, 외계 생명체 존재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투고된 논문들 중 채택된 논문은 발표 후 <창조론 오픈 포럼> 6권 2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2. 8. 6(월) 09:00-17:00
- 장소 : 성결대학교 인문대학 계단강의실 (안양)
- 문의 : 011-9963-0691(조덕영 목사), viewmanse@gmail.com



##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영상캠프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영상캠프가 7월 2일~5일까지 3박 4일동안 양평성결교회(담임 목사: 박기영)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초 7기와 심화1기 두 그룹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조성표, 김태항 교수의 세계관 강의와 박정현, 장유진 PD의 영상제작 실습을 통하여 실제적인 영상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고 조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제 6 회 기독교 경영 캠프

Information

일시	2012년 8월 23(목)~25(토)
장소	홍원연수원
대상	기업과 경영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직장 초년생
회비	학생 6만원/ 일반 10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827901-04-007054 (예금주: 사단법인 기독교경영연구원)
환불규정	월 31일 이전 등록시 학생 5만원/ 일반 9만원
등록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등록
주요강사	김태항 사무총장(양평성결교회), 조성표, 장유진 PD

## 기독교경영캠프

기독교경영연구원에서는 "기독교경영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제6회 기독교경영캠프를 진행합니다. 성경에서 도출한 기독교경영원리를 통하여 경영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장소 : 2012. 8. 23(목) ~ 25(토), 홍원연수원
- 대상 : 기업과 경영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직장 초년생
- 회비 : 학생 6만원/ 일반 10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27901-04-007054 (예금주: 사단법인 기독교경영연구원)
- 할인 : 월 31일 이전까지 등록시 학생 5만원/ 일반 9만원
- 환불규정 : 취소시 80% 환불(8. 15 이후 환불 불가)
- 등록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등록
- 문의 : 02-718-3256 www.kocam.org kocam@kocam.org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 PURE PLEASURE



쾌락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  
 쾌락을 좇아 사는 사람  
 쾌락을 엉뚱한 데서 찾는 사람  
 쾌락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이런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그래서 당신이 읽어야 할 책!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신국번형 | 344면 | 15,000원

## 쾌락이 흘러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한 삶이다

## 한 평생 창조론 연구에 매진해 온 양승훈 교수가 직접 들려주는 창조론 동영상 강의



6장의 DVD 총 24개 강의로 구성된  
 1셋트가 33,000원

**양승훈 교수**

현 VIEW(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역임

**학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BA)  
 KAIST 물리학과 반도체물성(MS, Ph.D)  
 위스콘신대학 과학사학과(MA)  
 위트대학 신학과(MA)

**저서**  
 「다중격변창조론」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창조와 격변」 「창조론 탐구학습」 「창조론 대강좌」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물에 빠진 오리」 등 다수



구입문의: 도서출판CUP T. 02)745-7231 F. 02)745-7239 E-mail. cup21th@paran.com



남태평양  
무공해 선교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출격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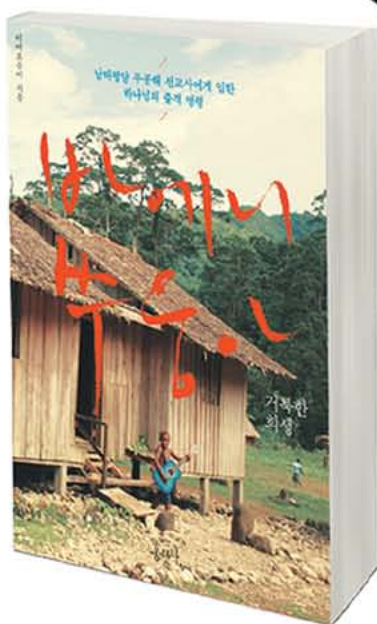
# 바에니 쑤웅아, 거룩한 희생

생사를 갈음하는 거친 파도를 넘어  
남태평양 미전도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카누에 올라탄 이여호수아 선교사와  
남태평양 원주민 사역자들의 좌충우돌 선교 현장 파노라마

**이영표(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종희(〈뉴스앤조이〉 대표),  
고든 다르시 릴로(솔로몬제도 수상) 추천!!**

이여호수아(이건호)

환태평양선교회 대표, 뉴질랜드 환태평양복음교회 담임목사.  
1993년 11월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은 뒤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모여 사는  
오랜랜드 남쪽 오타후후에서 마약, 알코올,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바에니 쑤웅아'는 솔로몬제도 원주민들이 이여호수아 선교사에게 붙여 준 이름으로,  
'파이오 부족의 거룩한 희생'이라는 뜻이다.



이여호수아 지음 | A5 | 340면 | 15,000원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홍성사.